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나지완

24명중 13명 '軍 미필 군단'

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KIA 나지완·양현종 승선

'최고 활약' 서건창 탈락, 2루수 오재원·유격수 김상수

'호랑이 군단'의 에이스와 4번 타자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KIA 좌완 양현종과 외야수 나지완이 28일 발표된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선했다.

2차 엔트리에 깜짝 합류했던 외야수 김주찬과 탈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2루수 안치홍은 최종 엔트리(24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발표된 2차 예비 엔트리 37명 가운데 투수 10명, 포수 2명, 야수 11명 등 23명이 생존했다. 남은 한자리는 KT 우선지명 선수인 아마추어 투수 홍성무(동의대)에게 돌아갔다. 논란이 분분했던 2루수 부문에서는 오재원(두산)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마운드는 11명으로 꾸려졌다. 양현종이 SK의 김광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선발로 서고, 삼성 임창용과 안지만이 불펜에 경험을 더했다. 이태양(한화), 이재학(NC), 홍성무 등 우완 신진급 투수 3인방도 포진했다.

홈런왕 박병호(넥센)가 1루를 지키고, 오재원은 멀티 능력을 우선 평가 받으면서 '경험'의 정근우(한화)와 '성적'의 서건창(넥센)·안치홍을 누르고 2루수 부문 승자가 됐다.

2루와 함께 접전지로 꼽혔던 3루에서는 황재균(롯데)과 김민성(넥센)이 낙점을 받았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정호(넥센)와 삼성 김상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타율이 0.285에 불과한 김상수는 기동력과 수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내야 한자리를 차지했다.

'결정적 한방'을 가지고 있는 나지완은 김현수·민병헌(이상 두산), 손아섭(롯데), 나성범(NC)과 함께 당당히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나지완은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말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편하게 시즌을 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을 많이 졸였다. 태극마크를 달게 돼서 영광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남은 시즌 잘 보내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금메달이라는 목표까지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최종 명단에는 나지완을 비롯한 병역 미필자가 총 13명에 이른다. 야구가 오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제외된 만큼 미필자 중심의 선발로 동기 부여를 극대화해,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서 2연패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은 병역 미필자(13명)

△ 투수(11명) ▲ 우완(4명) = 안지만(삼성), ★유원상(LG), ★이태양(한화), ★홍성무(동의대) ▲ 좌완(4명) = 양현종(KIA), ★차우찬(삼성), 봉중근(LG), 김광현(SK) ▲ 사이드암(1명) = ★이재학(NC) ▲ 언더핸드(2명) = 임창용(삼성), ★한현희(넥센) △ 포수(2명) = 강민호(롯데) 이재원(SK) △ 내야수(6명) ▲ 1루수(1명) = 박병호(넥센) ▲ 2루수(1명) = ★오재원(두산) ▲ 3루수(2명) = ★황재균(롯데), ★김민성(넥센) ▲ 유격수(2명) = 강정호(넥센), ★김상수(삼성) △ 외야수(5명) = ★나지완(KIA), 김현수·민병헌(이상 두산), ★손아섭(롯데), ★나성범(NC)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갈 길 바쁜 KIA, NC·삼성 상위팀과 6연전

KIA 김주찬과 이대형이 '치고 달린다'.

후반기 첫 주를 2승 4패로 마감한 KIA가 난적과의 승부를 앞두고 있다. 주중 NC 안방에서 원정경기를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과 대결을 벌인다.

3위 NC와 1위 삼성, 상위권 팀과의 대결. 상대전적에서 일방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 NC에 3승6패로 밀린 KIA는 삼성전에서는 2승6패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전반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팀의 도전 속, 개인 기록 도전에도 눈길이 간다.

불꽃 타격을 선보이고 있는 김주찬은 최소경기 100안타 신기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찬은 올 시즌 61경기에서 99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100안타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종전 최소경기 100안타 기록은 1999년 이병규(LG)와 올 시즌 서건창(넥센)이 작성한 64경기. 김주찬이 앞으로 두 경기에서 안타를 더하면 최소경기 100안타 기록이 새로 써진다.

'슈퍼소닉' 이대형의 질주도 기다린다.

지난 24일 LG와의 홈경기에서 팀의 4000도루를 찍었던 이대형은 400도루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3차례 더 베이스를 훔치면 전준호(550), 이종범(510), 정수근(474)에 이어 역대 4번째 400도루를 기록하는 '대도'가 된다. '캡틴' 이범호는 8번 홈을 더 밟으면 통산 35번째 700득점을 기록하게 된다.

한편 이범호는 지난 2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10호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이승엽과 함께 역대 만루홈런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류, 박찬호 최다승 -6

SF전 6이닝 3실점 시즌 12승…커쇼·그레인키와 NL 다승 공동 2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숙적' 샌프란시스코(SF)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12승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28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6안타(1홈런)와 볼넷 하나를 내주고 3실점(3자책)으로 막아 다저스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탈삼진 7개를 보태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지난해(147개)에 이어 2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105개)을 작성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4-3으로 앞선 7회말 수비 때 J.P. 하웰과 교체됐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샌프란시스코에 1게임반 뒤진 상태에서 이번 3연전에 돌입했지만 잭 그레인키(7이닝 4피안타 무실점)와 클레이턴 커쇼(9이닝 무실점 완봉승)에 이어 류현진의 호투가 계속되면서 격차를 1게임반으로 벌렸다.

류현진은 그레인키, 커쇼와 나란히 12승 투수 대열에 합류한 것은 물론 내셔널리그(NL) 다승 부문 공동 2위까지 도약했다. 공 17개로 2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틀어막은 류현진은 3회말 선두타자 댄 어글라에게 볼넷을 내주고 첫 출루를 허용했다. 브랜든 크로퍼드, 제이크 피비를 연속 삼진 처리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지만 '천적' 헌터 펜스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다저스 타선이 곧바로 반격했다. 4회초 선두 타자 헨리 라미레스가 2루수 댄 어글라의 실책으로 출루한 다저스는 이어진 1사 1·2루에서 후안 우리베의 좌전 적시타로 1-1 균형을 맞췄다.

4회말 연속 안타로 1사 1·2루의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댄 어글라를 중견수 뜬공으로 요리하며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브랜든 크로포드에게 풀카운트 접전 끝에 좌전 적시타를 내줬다.

5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류현진은 피비의 슬라이더를 잘 끌어당겨 3루 베이스를 스쳐 지나가는 2루타성 타구로 연결했지만 3루수 파블로 산도발이 몸을 날려 건져내면서 1루에서 아웃됐다. 하지만 다저스가 상대 포수 포지의 악송구와 헨리 라메리스의 중전 적시타 등으로 3-2 역전에 성공했고, 칼 크로포드의 3루타로 점수 차를 2점으로 벌렸다.

류현진은 5회말 2사에서 포지에게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내줬지만 6회말 삼진 2개를 곁들여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고, 7회말 수비부터 공을 하웰에게 넘겼다.

/연합뉴스

최복음 '어게인 광저우'

〈광양시청〉

AG 볼링 국가대표 12명 확정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볼링 3관왕 최복음(광양시청)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간다.

대한볼링협회가 지난 6~11일과 21~26일에 걸쳐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경기장에서 진행된 평가전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빛나는 최복음(광양시청)은 팀 동료 박종우와 함께 국가대표에 선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스트라이크에 도전한다.

김경민·홍해솔(이상 인천교통공사), 강희원(부산광역시청), 신승현(수원시청)도 남자 선수로 뽑혔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3관왕을 차지한 손연희(용인시청)는 여자 대표팀 '맏언니'로 정다운(창원시청), 이나영(대전광역시청), 이영승(한국체대), 김진선(구미시청), 전은희(서울시설관리공단)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